

# 특성화고가 가진 매력 발산

## 경남교육청, 매력적인 특성화고 만들기 워크숍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10일 이틀간 삼천포 남일대리조트에서 경남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장, 취업부장, 3학년 담임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특성화고 만들기 위한 취업역량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특성화고 관리자와 취업부장, 3학년 담임교사의 역할 이해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정보 공유를 통해 취업역량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경남교육청 김태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의 직업교육정책

방향, 현장 지원방안, 도제교육, 직업교육비중확대 등 직업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어 삼일상고 장재환 부장(명문학벌 안 부림다), 특성화고 전신시대(자)와 특성화고 교사의 역할 특강을 비롯해 ▲노사발전재단 경남지사 이남우 소장의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이해 ▲마산고 신영진 교사의 해외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방법 및 전략 ▲경남자동차고 김병희 부장의 취업맞춤형 취업역량제고 ▲조규갑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의 안전

이 우선되는 현장실습, 선취업·후진학제도 안내 ▲인지는 취업지원관의 취업자들의 취업지원방법 ▲이경만 육군홍보관의 부사관 및 기술특기병 모병안내를 통해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을 강화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2월 졸업생의 취업률은 55.8%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운영 목표 1순위를 취업률 제고에 두고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진교생에게 장학금 지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확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확대 ▲글로벌 현장학습 ▲NCS 기반의 일·학습-지역이 일체화된 교육과정 운영 ▲학생동아리 및 중학생 직업제

원캠프 지원 ▲취업 선배와의 대화 ▲찾아가는 심진모의면접 클리닉 ▲해외인턴십(호주, 뉴질랜드) ▲중견기업 CEO 및 마이스터 특강 ▲취업 캠프 및 유망 강소기업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남교육청 유장영 과학직업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달라지는 직업교육정책이 현장에 내실 있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先취업 후진학 제도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라면 누구나 수능 점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중학교에 적극 홍보해 매력적인 특성화고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기기자 khh@

## 경남교육청 2016. 행복학교 성과보고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창원컨벤션센터와 창원중앙중학교에서 '행복학교' 새로운 학교 문화를 불태다'라는 슬로건으로 2016. 행복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학교에 관심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약 1200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행복학교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경남교육청의 첫 번째 여섯사업인 행복학교는 현재 2년제 추진 중이며 2016년 현재까지 21개 행복학교와 65

개 행복학교와, 30개 행복학교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움과 협력 이 있는 미래형 학교를 지향하며 혁신적인 공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첫날인 10일 오전 10시30분 박림희장(CECO)의 중앙 무대에서 이렇고 등학교 덴스 동아리의 멋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행복학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토크 콘서트'

가 이어졌다. 행복학교 토크콘서트에서는 학교장(교장조 김경숙), 교사(사과중 전진희), 학생(아린고 김동욱), 학부모(구봉초 김현정)가 함께 행복학교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슬픔과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은 박종훈교육감은 "무엇이든 갈등과 고통 없는 생활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 갈등과 고통의 끝이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열정이 항상 아이들 곁으로 가는 그 길기를, 그러길 바라준다"고 말했다. 또한 토크콘서트를 마친 김동욱 학생은 "평소 별로 어렵게만 느껴지던 교육과정과 이렇게 가까워서 학교 생활의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우리학교의 다양한 선생님들과 같았다"며 상쾌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한편 토크콘서트에는 각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경남교육관계자 및 일반 학부모 700여명이 관람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창원중앙중학교 체육관과 급식소, 본관, 별관 등에서는 30개 주제로 사람도서관이 열렸다.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총력

### 창원교육지원청, 행복공감 권역별 돌봄서비스 협의체 구성 운영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교육감 안병학)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관내 권역별 돌봄협의체 중심학교 고교 및 업무담당교사 88명과 창원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와 함께 권역별(중심학교) 돌봄협의체를 개회했다. 권역별 돌봄협의체는 관내 초등학교 88개교와 인근 지역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야구센터 등) 79개소 간의 권역별(중심교 단위) 돌

봄협의회를 구축하여 현재 44권역의 돌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권역별 돌봄협의회는 2016. 권역별 돌봄협의체 우수사례 발표 및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내년에 부처 통합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7학년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를 내년 1월 16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2016. 창원시 방과후 돌봄기관 안내자료를 11,200부를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 및 지자체(읍면동) 등에 배포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창원 관내 지역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필요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공감 돌봄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기기자 khh@

##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식하다

### 경남교육청,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 2개 '최우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2개 영역에서 최우수 입상, 2개 영역에서 장려로 입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인식개선

(UCC·포스터)과 다문화 실천사례(교육자료·교육수기)로 나뉘어 열렸다. 경남은 UCC 부문에서 유목초등학교(교장 남영희) '한울안을 함참한다' 활동을 담은 내용이 최우수상을 차지

했다. 유목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로 발돋워져 후원을 받아 경남대학교 문화원장에게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로 '한울안을 함참한다'를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함참단에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도 활동하고 있다. 또, 다문화 실천사례인 교육수기 부문에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로 하나'라는 내용은 등 경남해림학교 박연희 교사가 최우수상, 산외초등학교 김혜영 교사의 '네티즌에 외갓집을 둔 아이들의 생활'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교육자료부문에서는 김해내동초등학교 김연진 교사의 '함께 크는 지구인'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 대회는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달라서 더 즐거운 학교"라는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역심사를 통과한 작품이 출품돼 4편이 입상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과 다문화 체험 활동 지원 등 각종 다문화 정책을 꾸준히 지원해왔고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우리 교육청 다문화 교육의 우수성과가 타 다문화 유관기관에 공유되는 등 경남 다문화 교육 정책의 위상을 높였고 경남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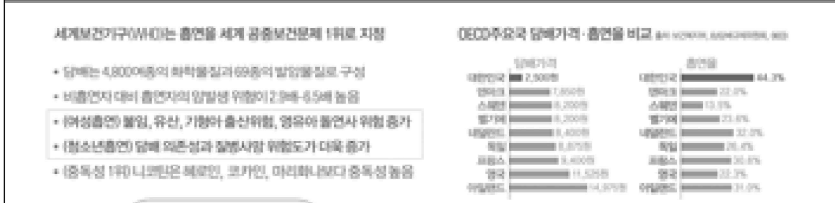
###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매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통재정을 상실할 관리하여야 할 불행지로서  
흡연부터 심각성을 알리고  
보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알고 계산하세요?



각국담배 광고문구 비교

한국	호주	유엔연합	우루과이
RAISON MILK NS	SMOKING CAUSES MOUTH CANCER TONGUE CANCER	FUMANDO, SE PUERE MORIR	

## 함께라서 더 행복한 2016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 "내 재능에 나도 놀랐어요"

### 경남해림학교,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대상' 수상

경남해림학교(교장 정길화) 치어 리딩팀이 지난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2중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6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론했다. 한국자립생활지원회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및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전국 14개 공역단 214명이 참여해 밴드연주, 발리댄스, 합창, 음악놀이, 수화 뮤지컬, 난타, 치어리딩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학교, 기업 등의 자원봉사자 기부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남해림학교 정길화 교장은 "학생들이 전국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경쟁한 후보로 기뻐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견스럽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잠재력과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호기기자 khh@

대회에 참가한 10명의 팀들 중 김효정(고2) 학생은 "이번에 큰 대회에 경상남도를 대표해 참가하여 공연을 해서 많이 떨었는데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욱더 멋진 공연을 선보여 학교를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경남해림학교 정길화 교장은 "학생들이 전국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경쟁한 후보로 기뻐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견스럽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잠재력과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호기기자 khh@